

해방전후 함대훈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 연구

강 용 훈
(인천대학교)

❖ 국문초록

식민지 시기 함대훈은 러시아 문학을 자신의 소설 창작에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그 중에서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은 함대훈의 첫 장편소설 『폭풍전야』에도,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에도 반복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함대훈 문학에 차용된 러시아 문학은 지금 이곳과는 다른 문화, 다른 질서에 대한 인물들의 동경을 이끌어냈으며, 인물들의 동경은 1930년대 중반 발표된 『폭풍전야』에서는 민족운동에 뛰어든 신청년(新靑年)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냈다.

반면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은 『폭풍전야』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차용하고 있지만, 이 소설에는 『폭풍전야』와는 변별되는 지정학적 상상력이 구현되어 있다. 『북풍의 정열』에서는 ‘만주’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은 소거된 반면, ‘만주’와 과거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던 ‘러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열정이 만주에 대한 동경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함대훈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930년대 후반 함대훈의 소설에서는 ‘러시아’가 ‘북국’으로도 표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함대훈 문학에서 ‘북국’은 점차 ‘러시아’가 아니라 ‘만주’를 지칭하는 공간 표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와 만주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만주’가 시베리아 지방과 멀지 않은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언술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하고 싶은 제국 일본의 욕망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함대훈은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을, 제국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함대훈에게 ‘러시아’는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지만, 그 동경은 ‘만주’에 대한 함대훈의 인식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세속적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발표된 함대훈 장편소설 『청춘보』에서도 확인된다. 해방 직후는 소련이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부각되고 러시아어가 한국인의 일상적 담화공간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였다. 함대훈은 『청춘보』를 통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 소련의 문화를 동경하던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후, 그의 시선으로 해방 전후의 북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러시아의 문화 및 ‘소련’과 관련된 다층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재현의 양상을 만들어낸 것은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심퍼사이저(sympathizer) 의식, 즉 ‘동반자 의식’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동반자 의식은 식민지 후반의 조선에서 금지의 대상이었던 ‘소비에트’ 문화의 이국성을 그가 동경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이자 영어와 교환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해방 직후 ‘러시아’ 및 ‘소비에트’를 재현하던 주인공의 시선은 변모하게 된다. ‘붉은 군대’라는 상징 아래 ‘러시아’와 ‘소비에트’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던 시선은 점차 변모하였고, 월남(越南) 이후에는 ‘러시아’를 ‘공산주의’라는 도깨비에 의해 점령된 소굴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소비에트’는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기 가장 핵심적인 러시아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자로 규정된 함대훈의 해방 이후 행보, 그리고 해방 직후 그가 발표한 소설 『청춘보』의 러시아어 번역/통역가 광성식의 면모는 해방직후 한국의 러시아 문학 연구가 걸어야 할 침체의 길들을 서사의 형태로 예견하고 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 및 러시아의 이국적 문화에 대한 동경에 의해 수행되던 낭만적 번역, 해방 전후 함대훈 소설의 러시아 표상은 그러한 낭만적 번역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해방전후, 함대훈, 러시아, 소비에트, 표상, 낭만적, 북극, 번역, 냉전, 투르게네프

1. 러시아 문학 연구자가 바라본 해방전후

1946년 11월 발간된 『소련기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태준은 기차에 몸을 실고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방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태준은 시베리아를 향하는 장기수들의 침묵의 행렬을 떠올린다. 그 행렬은

곧 시베리아의 극한지대를 돌파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비에트 정부위원들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다. 이태준에게 오늘날의 시베리아는 “수인의 망령이나 배회하는 황원”으로 인식되던 과거와는 다른 곳, 즉 모스크바의 뉴스와 음악이 울리고 자원개발과 공업시설이 황원을 끝없이 낙토화하고 있는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다.

장기수의 행렬과 현재의 시베리아 표상이 대조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이태준은 고리키가 쓴 『밤주막』이라는 희곡의 한 이야기를 떠올린다.¹⁾ 이 희곡의 등장인물인 순례자 루카는 서로 존경하고 협력하며 사는 ‘진리의 나라’를 찾아 떠나려 했던 한 시베리아 청년의 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느 날 수많은 책과 지도를 가지고 그곳 시베리아를 찾아온 한 학자는 그 청년에게 진리의 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연이어 강조한다.²⁾ 고리키의 희곡에 나오는 이 우화는 정확하게 ‘유토피아(utopia)’의 의미, ‘현재와는 다른 이상적 질서를 지니지만 지금 이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태준은 시베리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바로 그 ‘존경과 협조의 인간 사회’가 지금 이곳, 소비에트에서 건설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이태준의 『소련기행』은 ‘조소문화협회’가 주도한 문화적 기획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이태준을 비롯한 일련의 조선 문인들은 소련 방문을 통해 텍스트로 번역된 소련을 넘어서 원본으로서의 소련의 모습에 다가설 수 있었다.³⁾ 그런데 『소련기행』은 표층적으로는 “해방이라는 민족적 기억을 세계 혁명사라는 층위에서 재구성”하려는 욕망⁴⁾을 발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고리키’로 대표되는 소련의 문화적 표상들을 재음미하려는 의도 또한 깃들어 있었다. 소련 군인이 기념으로 건네 준 고리키의 단편 소설 『눈이 창공 같은 여자』로부터 시작된 『소련기행』의 고리키 삽화는 필자가 고리키시를 경유하여 ‘고리키 전당’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리키 전당’에서 이태준은 아시아 사상을 비판했던 고리

1) 이태준, 상허학회 편, 『이태준전집 6: 소련기행·중국기행 외』, 소명출판, 2015.

2) 막심 고리키, 함대훈 역, 『밤주막』, 1949.

3)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2009.

4) 임유경, 앞의 글, 261쪽.

키의 논의를 환기하며 “일중 아편과 같은 이 아시아 감정의 신비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호흡할 자유”를 맛볼 것을 결심하기까지 한다.

이태준의 기행문 곳곳에 환기되고 있는 ‘고리키’ 형상, 그리고 이태준이 기행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용했던 고리키 희곡 『밤주막』의 이야기들은, 식민지 시기 『밤주막』을 최초로 번역했고 평론 등을 통해 고리키 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함대훈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⁵⁾ 함대훈은 1927년 외국 어전문학교 노어과에 입학하여 러시아문학을 공부했고 이후 극예술연구회 창립에 참여하며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공명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문학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다.⁶⁾ 함대훈은 졸업을 하기 전이었던 1930년 『동아일보』에 「환멸기의 노문호 ‘안톤 체홉’ 연구」와 「십월혁명 이후 소비에트문학의 경향-프로소설을 주로」라는 글을 연재한다.⁷⁾ 두 글을 통해 함대훈은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학이 차르 체제를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혁명이란 태풍이 노서아의 광야를 휩쓸 이후」 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전개된 양상까지 고찰하고 있다. 특히 「십월혁명 이후 소비에트문학의 경향-프로소설을 주로」에서 함대훈은 혁명 전후 할 것 없이 고리키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절대적 인기를 끌고 있는 작가였다고 말하고 있다. ‘고리키’는 함대훈에게 있어서 혁명 이전의 러시아 문학과 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문학, 그리고 동시대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 지점이었던 것이다.⁸⁾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함대훈에게 ‘러시아’는 혁명 이전 시기의 고전

5) 『밤주막』이라는 고리키의 희곡이 제국 일본 및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문경연, 「무대 위의 러시아, 번역된 고리키」, 『한국학연구』 35, 2014.

6) 함대훈, 「내藝術에 對한 抗辯 (上)」, 『조선일보』, 1937.10.24.

7) 함대훈, 「환멸기의 노문호 ‘안톤 체홉’ 연구」, 『동아일보』, 1930.03.04~03.19 및 함대훈, 「십월혁명 이후 소비에트문학의 경향-프로소설을 주로」, 1930.11.1~11.09.

8) 함대훈이 평론과 희곡 등을 통해 고리키를 수용한 양상은 최근의 학위논문에서 분석된 바 있다. 조시정, 「한국 근대문학 속에 나타난 고리키 신화의 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9. 다만 조시정의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의 고리키 수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함대훈의 문학 세계 속에서 고리키 수용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고찰하지 않았다.

적 문학과도, 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사회와도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표상이었다. 함대훈은 실제 소설 창작에서도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모티프를 소설적 장치로 활용하기도 했다. 대표적 예로 단편 소설 「자연(紫煙)」(1938)⁹⁾에서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를 연출하고 있는 주인공과 ‘안나’ 역을 맡은 배우 사이의 연애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는 서브 플롯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은 함경도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내’가 중학교 시절 백계 러시아 여성과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은 삽화가 삽입되어 있기도 하다.

해방 직후 발표된 장편소설 『청춘보』¹⁰⁾에 이르면 러시아 문학을 연구했고 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사회에 심정적으로 동조했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직접적으로 자기의 내면 풍경을 드러내게 된다. 『청춘보』는 작가 함대훈의 문학적 행력을 연상하게 하는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의 시선으로 해방 직후 한반도의 변화 양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춘보』의 특징은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드러난 서사적 양상, 즉 “계급보다 민족애에 더 솔직했던” 주인공 현이 해방 직후의 정세와 대면하며 자기 변화를 모색했던 서사¹¹⁾와

9) 함대훈, 「자연」, 『조광』, 1938.10.

10) 함대훈은 1930년대에 세 편의 장편소설 『폭풍전야』(『조선일보』), 『순정해협』(『조광』), 『무풍지대』(『조광』)를 발표했으며 각각의 작품이 연재된 상황은 참고문헌 참조 이상의 세 장편의 서사구조 및 작품 속에 나타난 공동체 표상에 대한 연구는 강용훈, 「식민지 청년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과 교통 없는 공동체-1930년대 함대훈 장편소설에 표상된 ‘공동체’와 ‘여성」, 『우리문학연구』 46, 2015. 참조 『폭풍전야』에 나타난 이중 검열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문한별, 「일제강점기 신문 연재소설의 이중 검열 양상」, 『국어국문학』 174, 2016.

이후 함대훈은 「방파제」(『조광』, 1938.12~1939.11), 「정열지대」(『비판』, 1940.1~6)를 연재했으나 연재를 완전히 끝맺지 못했다. 1943년에 함대훈은 『북풍의 정열』(조선출판사, 1943)를 발간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청춘보』(경향출판사, 1947)를 발간했다. (「방파제」 및 「정열지대」에 대한 내용은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고려대출판부, 2013 참조.)

『북풍의 정열』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가 발표된 바 있지만, 해방 직후 함대훈이 쓴 장편소설 『청춘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해방전후 발표된 『북풍의 정열』과 『청춘보』를 비교한 연구 또한 발표되지 않았다. 한홍화, 「만주 여행과 모순된 욕망의 문학적 재현: 함대훈의 장편소설 <북풍의 정열>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1, 2013. (이하 위의 인용된 함대훈의 장편소설과 관련된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려고 한다.)

11) 이태준, 「해방전후」, 『이태준전집 3권』, 소명출판, 283쪽.

일정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해방전후」와 『청춘보』는 모두 문학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해방전후의 시공간을 재현하고 있으며, 1946년 초 ‘신탁통치’와 관련된 대립 양상을 형상화하며 소설을 끝맺고 있다. 그러나 「해방전후」가 ‘서울’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군정이 지배하고 있는 해방 직후의 남한 사회를 주되게 그리고 있는 것과 달리, 『청춘보』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된 북조선 사회의 해방 직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 문학과 소비에트에 동경을 지니고 있던 연구자를 화자로 삼아, 해방 전후의 북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있기에 『청춘보』에는 러시아 및 소비에트와 관련된 다층적 표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설야의 「모자」 등의 텍스트와 소련을 방문한 지식인들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해방기에 재현된 소련의 모습을 분석해 왔다.¹²⁾ 이러한 연구들은 해방기의 소련 인식이 변화하게 된 양상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한 성과를 낳았지만, 해방 이전 시기의 텍스트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문화와 관련된 표상을 해방 이후의 ‘소련’ 및 ‘러시아’의 재현 방식 변화와 연관하여 고찰하지는 않았다.¹³⁾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대표적 러시아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자였던 함대훈의 소설을 대상으로 삼아, 해방전후 함대훈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소련’ 표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함대훈 소설 중에도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과 해방 직후 발표된 『청춘보』에 나타난 ‘러시아/소련’ 표상에 초점을 맞춰, 러시아 문헌 번역자의 시선이 해방 전후의 사회적, 문화적 변동을 재현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2)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남원진, 「한설야의 <모자>와 해방기 소련에 대한 인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47, 2011.

_____, 「해방기 소련에 대한 허구, 사실 그리고 역사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

임유경, 앞의 글, 2009.

13) 식민지 시기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 2008. 참조.

II. 동경의 공간 '러시아'와 '북국(北國)' 표상의 역할

1930년대 함대훈은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발표했으며 그 중 '러시아 문학'과 관련해서는 주로 체호프와 고리키의 문학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환멸기의 러시아를 상징하는 문학자로 규정되고 있다면, 후자는 소비에트 혁명 이후의 새로운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문학자의 특성을 소개하는 함대훈의 방식은 제정 러시아의 어둡고 억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소비에트 혁명 이후 러시아의 새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체호프와 고리키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함대훈의 러시아 및 소비에트 표상 방식은 1930년대 초·중반 함대훈의 평론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1930년대 대중잡지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 방식을 연구한 장영은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시기 러시아는 “사상성과 정치성을 배제, 탈각”시킨 채 ‘아메리카’와는 또다른 문명을 지니고 있는 이국(異國)으로 표상되고 있었다.¹⁴⁾ 흥미롭게도 장영은의 연구에서 1930년대 『삼천리』의 러시아 표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제시되고 있는 기사가 바로 함대훈이 쓴 「짜베트 동맹의 부인은 엇더케 지내는가」¹⁵⁾였다. 앞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함대훈은 소련을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련이 지니는 정치성을 부분적으로 탈각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함대훈은 반복적으로 소비에트를 새로움의 공간으로 표상하며, 이를 제정 시대의 러시아와 대비시키려는 모습을 견지했다.

함대훈은 러시아 문학 및 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문화를 평론 및 번역의 차원에서 소개했으며, 한 걸음 나아가 이를 자신의 소설 창작에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함대훈의 단편소설에서 러시아 표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작품은 단편소설 「묘비」¹⁶⁾다. 이 작품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는 주인공 ‘나’는 백계 러시아 여성 ‘안나’에게 매혹되어 있다. 두 등장인물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에는 ‘러시아 문학’이 개입되어 있

14) 장영은, 앞의 글, 224쪽.

15) 함대훈, 「짜베트 동맹의 부인은 엇더케 지내는가」, 『삼천리』, 1932.12.

16) 함대훈, 「묘비」, 『조광』, 1938.11.

다. ‘안나’는 주인공이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에 나오는 불가리아 청년 주인공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를 ‘인사롭흐’라고 부른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하여 이반 부닌의 「가을」에 나오는 정열적 주인공들의 맹목적 사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이 대화 속에 나오는 러시아 문학의 주인공들은 「묘비」의 두 인물 사이의 사랑을 대신 표현해주고 있다.

「묘비」의 ‘나’는 “문학에서 옛날 러시아 여자들의 순정, 인종, 인내, 의리를 보았고 안나에게서 폭은한 여자의 정”을 보았다고 말하며 이를 현재의 아내 모습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서 발견되듯이 함대훈의 작품에서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 여성은 조선 지식인 청년의 욕망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위상을 부여받고 있다. 그 욕망은 지금 이곳 조선의 질서와는 다른 층위에 있는 것에 대한 동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낭만적 특성을 지녔다고 규정될 수 있다.

「묘비」에도 언급되고 있는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은 함대훈의 첫 장편소설 『폭풍전야』에도, 해방 직전 발표된 『북풍의 정열』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은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의 소설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손성준의 연구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 현철과 조명희가 각각 『그 전날 밤』의 번역 및 각색을 진행했으며 나도향의 『별을 안거든 우지나 말걸』, 현진건의 장편소설 『지새는 안개』,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도 『그 전날 밤』이 언급되고 있었다.¹⁸⁾ 함대훈 역시 1920년대의 소설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 전날 밤』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설들이 『그 전날 밤』의 삼각관계 구도를 주되게 차용하고 있는

17) 함대훈은 에세이 「답보(踏歩)」(<박문> 12, 1939)에서 『폭풍전야』를 창작할 때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함대훈은 『그 전날 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회사조, 그리고 그 속에 삽입되어 있는 로맨스 때문에 이 작품에 이끌렸음을 토로하며, 톨스토이의 인도주의적 경향 및 도스토예프스키의 병적 심리외는 대비되는 투르게네프 소설의 특징으로 “사회를 논하고 인생을 부르짖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18) 선행연구들은 『그 전날 밤』의 번역 양상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투르게네프 문학이 1920년대 소설들에 미친 영향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 연구들 역시 식민지 시기 소설 작품들이 『그 전날 밤』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변용한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는 않았다. 손성준, 「식민지 벽연장과 검열-조명희의 『그 전날 밤』 번역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집, 2015.

데 반해, 함대훈의 『폭풍전야』는 남성 인물이 가려고 하는 민족운동의 행로 차체를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과 연결시키고 있다.

『폭풍전야』는 삼각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성주인공 성희의 모습을 그리는 한편, 성희가 민족운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동경하는 모습, 그리고 감옥에 간 청년 ‘신민’을 기다리며 공동체 운동에 뛰어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신민과 성희가 처음 간도에서 만나는 장면에도 「묘비」에서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이 차용되고 있다. 간도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성희는 『그 전날 밤』을 읽으며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불가리아로 떠나는 인사로프와 엘레나가 만나는 장면에 빠져든다. 그 부분에서 엘레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사로프를 따라 떠나려고 결심하고 있다.

『그 전날 밤』을 읽던 성희는 자신의 집에 갑자기 찾아와 민족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청년 신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불가리아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뛰어드는 인사로프와 자신을 찾아온 청년이, 그리고 인사로프와 함께 길을 떠난 엘레나와 성희 자신이 대응되고 있는 것이다. 『폭풍전야』에서 민족운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은 “부패된 조선 사회의 타락된 청년들”과 대비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함대훈의 소설에는 러시아 문학과 관련된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 모티프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지금 이곳의 질서와는 다른 영역에 대한 인물들의 동경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인물들의 동경은 1930년대 중반 발표된 『폭풍전야』에서는 신청년(新靑年)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 냈다.

반면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은 『폭풍전야』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차용하고 있지만, 이 소설에는 『폭풍전야』와는 변별되는 지정학적 상상력이 구현되어 있다. 이는 이 소설이 ‘만주’를 주무대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만주’와 ‘러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는 점과 연관된다. 『북풍의 정열』의 주인공 동철은 동경 유학 시절 사랑을 나눴던 순영과 재회하지만, 약혼자가 있는 순영과 사별한 동철 사이의 오해는 풀리지 않는다. 갈등하던 동철은 만주에서 논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공진에게 만주로 올 것을 권유받는다. “조선이란 데는 돌아오는 날부터 활동이 정지”(36쪽)되는 곳이라고 인식

하는 소설 속 인물들에게 만주는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무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 편지를 받은 후 소장 역사학자이자 종합잡지의 편집장인 인동철은 만주 특집 기사 집필을 할 겸 만주를 방문한다. 만주를 시찰하고 온 인동철은 자신이 근무하던 출판사에서 강연을 열어 만주에서 벌인 조선인의 수전 개척 사업을 예찬한 후 만주국의 운영 원리인 협화회 활동의 의미를 역설한다. 한홍화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러한 인동철의 담론은 일본 제국의 논리인 ‘선만일여론’의 틀 아래에서 만주를 바라본 것이다.¹⁹⁾

흥미로운 것은 만주를 다녀오면서부터 인동철이 과거의 애인이었던 순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출판사의 기자인 정현에게 사랑을 고백한 후 함께 만주를 떠날 것을 권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구체화된다.²⁰⁾ 편지를 받은 정현은 내적으로 번민하고 있으며 그 번민은 함대훈의 첫 장편소설 『폭풍전야』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저날 밤』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다.

정현인 편지를 다 읽고나서 얼굴이 확확함을 느꼈다. 「인선생님도 나와 같이 사랑했나」 이렇게 생각하니 정현인 마음의 회열이 온 세포를 자극시켜 전신이 약간 떨림을 느꼈다. 눈엔 눈물이 피어 들었다.

「인선생님도 날 사랑하신다.」

19) 한홍화, 앞의 글, 141쪽.

20) 『폭풍전야』와 『무풍지대』의 장편소설의 주인공들 역시 남녀 인물의 삼각관계를 형상화했으며, 이러한 삼각관계는 함대훈 장편소설의 서사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앞의 두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은 삼각관계를 맺었던 남성인물이 검거되면서 이러한 삼각관계로부터 탈피했다. 그 검거는 식민지 시기 억압되었던 대중운동의 흔적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에서는 삼각관계의 탈피를 가능하게 한 계기가 남성 주인공의 만주여행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즉 『북풍의 정열』에는 당대 대중운동과의 최소한의 긴장 관계가 삭제되어 있는 것이다. 『북풍의 정열』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이 『폭풍전야』의 표상과 달라진 결정적 원인 또한 작품 속 상황에 대중운동과의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로 넘어가며 함대훈 소설이 대중운동과의 긴장 관계를 놓쳐버린 것은 작가의 한계 탓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엄혹했던 검열 상황 때문이기도 했다. 『폭풍전야』에 재현된 민족운동과 이를 검열한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문한별, 2016 참조.

「나도 만주로 따라갈까」

투르게-네흐의 작품 『그전날밤』을 읽든 생각이 났다. 「인사료프」를 따라 외국으로 가든 「엘레나」의 모양이 눈아페 어즈렸다. 「인선생님만 허락 하신다문 나도 만주로 갈테야 그리구 인선생님의 일을 도와드리구...」
(『북풍의 정열』, 151쪽)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현은 인동철과 함께 만주로 떠날 것을 고민 하면서 이를, 인사료프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엘레나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폭풍전야』의 주인공 성희가 자신의 내적 번민을 『그전날 밤』의 엘레나와 연결시켰을 때 이는 불가리아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떠나는 인사료프의 행동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대응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북풍의 정열』에서는 이러한 효과는 삭제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외국으로 떠나는 엘레나의 공간적 이동만이 부각되고 있다. ‘만주’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은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만주’는 여러 외국 공간 중의 하나로만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북풍의 정열』에서는 그러한 ‘만주’를 과거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던 ‘러시아’와 연결시키고 있다.

문득 동철은 시베리아의 눈보라가 연상되었다. 대학시대 지리풍토적으로 본 노만(露滿) 지대의 사료를 수집하려고 그 어느해 겨울방학에 대학생만으로 조직된 대원들과 가치 떠났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지나갔다. 넓은 시베리아 들속의 시베리아, 바람속의 시베리아를 털외투속에 묻히어 돌아다니든 젊은 학도와 열정이 다시금 가슴속에 용소슴쳤다 더구나 만주의 넓은들과 풍토와 사적을 시베리아와 비교연구조사하든 그때의 정경은 어느때나 잊을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그해 구월십팔일에 일어난 만주사변은 새로운 동야의 여명임을 알게될 때 그는 만주에 대한 흥미가 날로 커가는 최근의 심경으로 봐서는 결국 자기는 조선을 떠나 만주에 가서 왕토낙토를 건설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됐다.

(『북풍의 정열』, 12쪽)

인용문에서는 ‘노만지방’이라는 공간적 지칭을 통해 러시아와 만주가 연결되고 있다.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될 수 있듯 대학생 시절 시베리아

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주인공의 열정은 만주에 대한 동경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과정은 함대훈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930년대 후반 함대훈의 소설에서는 ‘러시아’가 ‘북국’으로도 표상되고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함대훈의 단편소설 「자연」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전공한 러시아 문학을 “북국의 대삼림, 대광원에서 벗어내인 정열적인 문학”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북국’은 “북선 지방, 만주나 간도, 해삼위나 러시아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혼재”되어 쓰였지만, 이효석 등의 초기 소설에서 ‘북국’은 “소비에트 혁명에 성공한 신흥 나라” 러시아로 수렴되기도 했다.²¹⁾ ‘북국’과 ‘러시아’를 연결시킨 것은 「자연」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함대훈의 소설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함대훈 문학에서 ‘북국’은 점차 ‘러시아’가 아니라 ‘만주’를 지칭하는 공간 표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변화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하얼빈’이라는 공간이다. 『조광』 만주 관련 특집호에 실린 「남북만주편답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함대훈은 실제로 하얼빈을 방문했고 이에 대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김미란은 “하얼빈의 이국정취에 매혹되기보다는 이를 거리를 두고 관찰함으로써 대중적 소비 방식과 단절”하려고 한 점을 「남북만주편답기」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²²⁾ 그러한 거리 감각이 「남북만주편답기」에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글에서 함대훈은 송화강을 바라보며 ‘북국’에 대한 강렬한 동경 또한 드러내고 있다. 이 동경 안에서 러시아 문학에 대한 함대훈의 열정은 만주에 대한 설렘으로 전환되고 있다.

거센 물결이 멀리 극락도와 대안 송포에 기슭을 때릴 때 나는 멀거니 수수한 강수에 시름을 잊었노라, 어디를 가나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것이나 이 강이 물이 오늘은 왜 이처럼 내 가슴을 설레일고? 나는 노문학을 연구 하면서부터 북국을 좋아했고 눈오는 북국 깊이 닫힌 방문 안에서 이야기를 즐기는 북국 사람들을 좋아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생동하는 푸른 움이

21) 이현주,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4집, 2014, 664쪽 및 684쪽.

22) 김미란, 「감각의 순례와 중심의 재정위」, 『상허학보』 38집, 2013.

쑥 솟아나와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그 정취에 끝없는 동경을 가졌다. 거센 바람 거친 물결 푸른 잎을 보니 마음이 설레인다.

나는 끝없이 흐르는 강수를 내려 굽어보고만 있었다. 억센 호홉 거센 바람 거친 물결 나는 마음이 뭉 것처럼 좋았다. 어떻게서든지 이 하르빈에 묵고 싶다.²³⁾

인용문에서 함대훈은 송화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설렘을 느낀다. 그 설렘은 곧 러시아 문학을 연구할 때 느꼈던 '북국'에 대한 동경과 동일시되고 있다. '북국'이라는 표상을 매개로 러시아와 하얼빈은 정열을 가져다주는 유사한 공간으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표상은 『북풍의 정열』 속 다른 인물들인 이구와 채희를 형상화하는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1940년대 국민연극 담론을 분석한 연구자들이 지적했듯 “국민극장을 만들어 연극운동에 투신하는 이구의 이야기”는 함대훈의 “현대극장 경험담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다.²⁴⁾ 이구와 사랑에 빠지는 채희는 어려서부터 러시아에 자랐고 동경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조선에서 무용 연구소를 낸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는 연구소 일이 끝나면 북쪽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북풍의 찬미자라고 말한다. 결국 채희는 만주로 떠나게 되었고 국민연극의 소재를 확보하러 만주를 찾은 이구는 채희와 재회한다.

① 「그런데 채희씨」

「네?」

「대체 여긴 급작시리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요?」

채희는 가볍게 웃고

「뭐라구 할까요 그저 방랑적 기분이랄까요 전 나기는 함경도에서 낳지만 이자르스에서 잠시 살었고 러시아에 가 오래 있어니만큼 마음이 피로우면 북쪽으로 오죠. 북풍의 찬미자지요. 찬바람을 맞아야 기운이 날것 같아요.」

23) 함대훈, 「남북만주편담기」,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183쪽.

24) 이상우, 「1940년대 현대극장과 친일극 연구」, 『한민족어문학』 38, 2001.

② 「선생님은 만주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이런 치위는 평생 처음입니다.」

「그러시오?」

「참눈이 잘오는데요.」

이중창님어 눈이 송이 송이 나리고 있었다.

「시베리아 같은 기분이군요.」

「시베리아! 그렇죠 시베리아! 그는, 그는, 그바람 시베리안 더춥죠」

(『북풍의 정열, 351~352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도 채희가 머무르고 있는 만주는 러시아와 겹쳐지며 ‘북쪽’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북풍의 정열’은 곧 ‘북쪽’이라는 공간 표상이 인물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정열을 환기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만주’는 ‘시베리아’와 유사성을 지닌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그들에게 ‘시베리아’는 춥지만 “치운 겨울이 오든 벽돌집에 따스한 폐치카가 방안을 덮여주”는 따뜻한 안식처로 인식되기까지 한다.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와 만주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만주’가 시베리아 지방과 멀지 않은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언술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하고 싶은 제국 일본의 욕망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²⁵⁾ 함대훈은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을, 제국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소비에트’ 표상에 대한 검열이 위력을 발휘했던 식민지 시기 함대훈에게 ‘러시아’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지만, 그 동경은 ‘만주’에 대한 함대훈의 인식에서 드러나듯 언제나 세속적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함대훈 소설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에서도 확인된다.

25) 『북풍의 정열』은 만주와 시베리아의 경계를 구획하는 흑룡강을 “슬라브 민족과 동이민족과의 오래된 투쟁의 피흘린 역사”(359쪽)를 간직한 공간으로 서술한다. 이는 이 작품에도 형상화되고 있는 당대의 세계정세, 즉 독소전쟁이 개시되고 일본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III. 탈식민-냉전기 언어질서의 재편과 러시아어 번역가의 위상 변화

2차 세계대전이 독일과 일본의 패전으로 끝난 이후, 제국 일본이 꿈꾸었던 대동아 공영권의 논리를 힘을 잃게 되었고 세계질서는 승전국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냉전질서의 한 축이었던 소련은 해방 이후 한반도 정세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는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언어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춘보』는 여섯 살 어린이인 옥주와 영란이 대화를 주고 받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소설의 첫 머리를 시작하며 탈식민-냉전기 언어질서의 재편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춘보』의 첫 장면에서 옥주와 영란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부루에 우트로’라는 러시아어 말로 인사를 건네는 옥주에게 영란은 ‘굳모닝’으로 대답한다. 영란은 미군이 진주해 있는 삼팔선 이남 서울에, 반면 옥주는 소련군이 진주해 있는 삼팔선 이북에 살고 있었기에 이러한 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청춘보』는 두 어린이가 서툴게 영어와 러시아어를 주고 받는 장면을 보여주며 “로시아말과 영어가 서로 교환”되기 시작한 해방 직후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청춘보』의 첫 장면은 이광수의 『무정』에서 가정교사 형식이 선행 등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정』이 알파벳을 서툴게 따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서두에 배치하며 서구문명이 매혹과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상황을 환기시켰다면, 『청춘보』는 러시아어가 영어와 교환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한 해방 직후의 언어적 질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뿐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영어와 러시아어를 발화하고 있는 것은 곧 해방 직후의 조선에서 영어와 러시아어의 유입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옥주의 어머니는 “해방된 민족이니까 제 나라말과 글부터 써야”한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영국말이나 로서얏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요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옥주의 어머니의 말 속에서 ‘해방’이라는 개념이 곧 민족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등치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나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시기의 조선어에 대한 관심은 영어와 러시아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이는 곧 해방 직후 언어질서의 재편이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질서와 연동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청춘보』의 첫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해방기 언어질서의 재편은 이 시기 발간된 『신어사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1946년 발간된 민조사판 『신어사전』과 지중세가 편찬한 『최신현대어사전』에는 미군정의 지배와 맞물려 영어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 사회과학적 개념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어 및 소련과 연관된 어휘들 역시 이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했다.²⁶⁾ 러시아에 있는 난방장치를 의미하는 ‘페치카(Pechka)’라는 어휘²⁷⁾와 혁명 이후 소비에트가 도입한 신경제정책으로 인해 생긴 “有閑分子(私人의 利潤만 目的한 商人)”를 일컫는 ‘네프·맨(Nepman)’이라는 어휘²⁸⁾는 그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해방 직후의 언어질서에서 ‘러시아어’의 위상이 강화된 상황은 곧 ‘러시아’ 표상 자체가 재편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청춘보』에서 ‘러시아’는 노어(露語) 및 소련군과 연결된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소련군 형상이 해방 이후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제질서를 환기시킨다면, 소설 속에 삽입된 ‘노어(露語)’는 소련의 위상이 일상의 담화공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26) 박용재, 「해방기 신어사전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37, 상허학회, 2013 및 황호덕,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대동문화연구』 85, 대동문화연구원, 2015 참조. 앞의 논문들 중 황호덕의 경우 영어가 부각되고 있는 양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박용재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 영어와 비교될 수는 없지만 소련과 관련된 어휘들이 다수 포착된다”(382쪽)고 분석하고 있다.

27) 『신어사전』, 민조사, 1946, 139쪽. 표제어 및 해설 부분에서 민조사의 『신어사전』과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조선사편의 『신어사전』(1934)에는 ‘페치카(Pechka)’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 ‘페치카’는 식민지 시대의 문학 작품 및 신문기사에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신어사전』에 본격적으로 등재된 것은 해방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년조선사 편 『신어사전』(1934)은 한림과학원 위음, 『한국근대신어사전』, 선인, 2010 참조. 식민지 시대의 『신어사전』(청년조선사)과 해방 이후의 『신어사전』(민조사)의 비교 양상에 대해서는 박용재, 앞의 글, 374쪽 참조.

28) 지중세 편, 『최신 현대어사전』, 신광출판사, 1946, 38~39쪽.

해방 이후 러시아어가 영어와 교환가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된 상황은 해방 이전의 '노어(露語)'가 식민지 조선에서 지니고 있던 위상과 변별된 것이었다. 이 점은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청춘보』의 중심인물 곽성식의 회상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2차대전의 막바지에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전면전을 벌이게 되자 곽성식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의 내면 풍경은 소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이십년전 그가 XX대학 러시아 문학부에 들어간 동기는 러시아 문학이 가지는 그 웅대한 사회의 구상 속에 새겨진 파노라마에도 취미있었지만, 점차 싸베-트의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면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이 되어 맑스, 엥겔스와, 레닌, 스탈린 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공산당의 이론체제에 까지 연구를 발전시켜 왔었던 그였었다. 그러기 이제 북조선 한 끝에 붉은 군대가 상륙했다, 했을 때 그의 가슴은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글로 책으로 보던 그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악수를 하고, 서로 말을 건너 보고, 같이 나란히 걸어 보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조선의 사정을 이야기 하고, 해방된 조선의 모양을 말하면서 영웅적 승리자 붉은 군대를 맞이할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중략)

일제의 폭압 속에 러시아 글자만이라두 보려구 하르빈서 발행하는 일계(日系)의 신문 “하르빈스코예브레냐”를 사보고, 혹시 백계 러시아 사람들에게 회화 공부를 하면서, 그는 러시아 말과 글을 될수록 잊지 않으려 했던 자기가 아니던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어학에 대한 것을 쓸 기회가 너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곤, 그들 붉은 군대가 오면 회화가 잘될 것인가 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도 보았다. (『청춘보』, 78~79쪽)

위의 인용문은 식민지 시기 러시아 문학 연구가 지녔던 중층적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청춘보』의 주인공이 보여주듯 러시아 문학에 대한 관심은 언제든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러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은 식민지 시기 통치 권력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²⁹⁾ 그러나 허용된 표상의 범위 안에서만, 즉 금지된 정치성을

29) 앞의 장에서 언급한 장영은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함대훈 역시 식민지 시기 소련을

배제한 채 문화적 관점에서만 소비에트에 접근하려는 태도의 이면에는 금지된 것에 대한 내밀한 동경들 또한 깃들여 있었다. 식민지 권력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말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보』 속 광성식의 모습은 이러한 동경들을 회고의 형태로 재현하고 있다.

『청춘보』가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소련군이 북한으로 진주해온 탈식민-냉전기에 북한의 대중들은 서적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접하던 소련, 소련인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다. 그 대면은 곧 금지된 언어였던 러시아어의 위상 변화와 맞물려 있었으며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던 지정학적 질서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차대전 이후 “해방과 독립의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아시아를 재편했지만, 그 재편은 한편으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세력권이 각기 구도하는 세계적인 지배질서의 구축 과정에 규정”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⁰⁾ 남한과 북한은 냉전 체제의 중심 국가인 미국과 소련을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선진문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건설하려는 지향을 드러냈던 것이다.³¹⁾

러시아어로 회화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광성식은 곧 러시아와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국교가 열리면 러시아 유학의 길을 떠날 수도 있겠고, 외무성의 관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꿈까지 가지게 된다. 이러한 꿈은 이 작품의 서두에 제시된 러시아어와 영어를 주고받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영어와 러시아어를 배울 수 있으면 배워두어야 된다고 말하던 어른들의 모습과도 연결되고 있다.

해방 이후 지식/문화 영역의 재편은 ‘번역’ 및 ‘번역가’가 중요한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청춘보』의 주인공 광성식은 바로 이 시기 북조선의 러시아 번역가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³²⁾ 러시아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련이 지니는 정치성을 부분적으로 탈각시켰다. 함대훈, 「싸-베트 동맹의 부인은 엇더케 지내는가」, 『삼천리』, 1932.12. 장영은, 앞의 글, 224쪽.

30)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1」,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14, 33쪽.

31) 허은, 「냉전시대 남북 분단국가의 문화정체성 모색과 ‘냉전 민족주의」, 『한국사학보』 43, 2011, 215쪽.

32) 이 시기의 대표적 영어 번역가인 설정식의 행보와 그의 번역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문학 연구자였던 곽성식은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된 탈식민-냉전기에 이르러 러시아어 통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식민지 말기에는 사용될 기회가 없었던 러시아어는 소련군이 진주한 이후 러시아 유학이나 외무성 관리로 대표되는 세속적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함대훈은 통역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곽성식을 통해 탈식민-냉전 시기 변화한 러시아어 번역가의 위상을 드러내려 했다. 주인공 곽성식은 북조선에 진주한 소련군으로부터 통역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소련군에게 곽성식은 “싸베-트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곽성식 역시 소련군과 손을 잡고 일할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로시아어로 말하고” 소련군들과 “같이 먹고, 일하고 하는 것”에 크나큰 유쾌함을 느끼기까지 한다.

월남한 이후 발표한 「소연방신문개관」³³⁾이라는 글에서 회고하고 있듯이 함대훈은 삼팔선을 넘으면서도 화로사전(和露辭典), 노화사전(露和辭典) 두 권과 소련의 신문 <프라보다>, <이즈베스티야> 신문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왔다. 함대훈이 가져온 사전은 곧 함대훈에게 러시아어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기 러시아어 번역은 함대훈의 낭만적 열정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열정이 사적인 영역 바깥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함대훈의 소설 작품 속에서 확인할 수 있듯 충분히 모색되지 못했다.

그러나 탈식민-냉전 시기 러시아어는 소련인들이 북한 대중들을 통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소련군이 해방 직후 북한의 통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며 그들과 일상적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통역의 자리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그 자리는 끊임없는 정치적 갈등에 노출되어 있었다.³⁴⁾ 『청춘보』의 곽성식이 수행하고 있는 통역관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곽성식은 “러시아 사령부에 통역해주는 것”을 기회로 “공산당에 불리한 정보를 러시아 사령부와 민간

조은애, 「통역/번역되는 냉전의 언어와 영문학자의 위치」, 『한국문학연구』 45, 2013.

33) 함대훈, 「소연방신문개관」, 『신문평론』 창간호, 신문평론사, 1947.4

34) 함대훈 스스로의 회고에도 짧은 러시아어가 자신에게 “철창생활 육십사일의 기록”을 남겨주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함대훈, 앞의 글, 29쪽.

에 산포한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소설 안에서 이 체포는 오히려 밝혀져 광성식은 석방되기에 이르지만, 그 체포는 곧 탈식민-냉전기 러시아어 번역가가 자리하고 있던 위태로운 위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³⁵⁾

Ⅳ. ‘소비에트’와 ‘러시아’ 표상의 결합과 분리: 이국적 표상과 정치적 상징의 경계

앞의 장에서 확인했듯 『청춘보』에는 해방 직후 러시아어의 위상이 재정립된 양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이외에도 ‘러시아’와 관련된 다층적 표상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표상들이 해방을 전후로 변화하고 있던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춘보』가 지니고 있는 시/공간적 특징과도 맞물려 있다. 『청춘보』의 서사는 북조선에 거주하던 주인공인 광성식이 1946년 2월 24일 삼팔선을 넘어 서울로 향하게 된 직후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러시아와 영어를 주고받는 아이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북조선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 북조선의 동포를 구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남한 청년들과 주인공의 대화로 이어진다. (1장 「봄」, 2장 「철의 장막」, 3장 「조국을 위한 마음」)

이처럼 1946년 2월 이후의 상황을 재현하던 이야기는 4장 「붉은 기(旗)빨이 펴릴 때」부터 해방 직전의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청춘보』는 5장 「태극기 번득이는 해방의 날」과 6장 「붉은 군대가 오는 날」에서는 해방 전후의 1945년 상황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러한 시간적 서술의 변화 양상은 공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1946년 2월 이후의 현재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서울’이라는 38선 이남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면, 주인공의 회상을 통해 해방 전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는 38선 이북의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

35) 이는 러시아어 통역가 뿐 아니라 영어 통역자 역시 맞닥뜨려야 할 곤경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조은애의 연구에서도 설정식을 분석하며 “해방기의 영문학자는 통역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냉전적 의사소통의 상황을 그 자신의 수행성을 통해” 보여주었음을 지적한다. 조은애, 앞의 글, 46쪽.

『청춘보』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해방 전후의 표상 변화가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4장부터 6장, 즉 북한에서의 주인공 광성식의 행보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식민지 말기의 광성식에게 소련의 2차대전 참전은 희망으로 다가왔다. 이때 광성식은 소련을 ‘싸베트’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함대훈이 처음으로 혁명 이후의 러시아를 ‘소베트’ 혹은 ‘싸베트’로 지칭했던 것과도 연관된다.³⁶⁾ 반면 함대훈은 언어나 문학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는 ‘로시아’ 혹은 ‘로시아’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지닌 채 작품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시아’와 ‘싸베-트’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은 ‘붉은 군대’라는 명명이다.

① “로시아의 산천과 강수를 보고 마시고 자라온 로시아의 붉은 군대, 펄떡이는 붉은기! 음악적인 말! 순박한 병사 평민적인 그들의 생활!” 모든 것이 성식이에겐 아름답게만 보였다. (『청춘보』, 80쪽)

② 팔월달도 늦은 어느날 누차 온다고 전하던 붉은 군대가 오늘이야 입성한다는 소식이 다시 들리었다. 부민들은 해방의 은인 붉은 군대가 일본군의 무장 해체와 일본 세력의 잔재를 청소할 목적으로 삼십 팔도 이북 조선에 진주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붉은 군대의 영웅적 입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마치 모두 감격이 새로웠다.

“붉은 군대가 온다.”

부민들은 누구나 싸베-트의 붉은 기와 태극기를 들고 정거장으로 몰밀 듯 몰려갔다. (『청춘보』, 115쪽)

첫 번째 인용문에서 ‘로시아’는 한편으로 ‘산천’ 및 ‘강수’와 연결되는 지리적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혁명 이후의 소련군을 상징하는 ‘붉은 군대’와 연결되고 있다. 해방 직후 북조선으로 진주해 들어온 소련군을 의미화한 두 번째 인용문에서도 ‘붉은 군대’라는 표현은 사용되고

36) 이에 대해서는 서은주, 「1930년대 외국문학 수용의 좌표: 세계, 민족,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28, 민족문학사학회, 2005, 50쪽 및 김수림, 「제국과 유럽: 삶의 장소, 초극의 장소」, 『상허학보』, 160쪽 참조.

있으며, 이 표현은 소비에트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과도 연동되고 있었다.

『청춘보』에서는 해방 직후의 북조선 사회에서 ‘붉은 군대’ 소련군이 해방의 은인이자 영웅적 승리자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춘보』에 나타난 소련군의 모습은 북한 사회 전반적인 소비에트 표상 방식과도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조쏘문화』 등 북한의 대표적 매체에서 소련은 연합국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친 해방군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³⁷⁾

그러한 표상 방식은 남한의 소련 표상 방식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청춘보』의 첫 머리에서도 광성식은 러시아 병정들이 행패를 부리지 않느냐는 서울 사람들의 질문에 “행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대체 그들은 순박하고 사람을 잘 따르고 평민적”이라고 대답하기까지 한다.³⁸⁾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는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상된 이상형으로서의 소비에트, 즉 붉은 군대 표상과 실제의 소련군 사이의 간극이 부각된다. 불시의 습격을 받아 공산당 본부에 감금된 주인공 광성식과 그의 동료들을 소련군이 반역자로 치부한 장면에서 이 점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③ 공산당원만은 안되었지만 자기가 걸어온 이십년간은 싸베-트문화과 문화일반에 관한 소개에 반생을 바쳐왔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박해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중략) 이제 그가 사모하고 연구하고 소개하고 찬양하던 싸베-트의 전승한 병사들의 총칼에 맞고 찢리고 하여 패잔병처럼 부풀려 그들앞에 꿇어앉아 있는 자기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것 무상한 것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다. (『청춘보』, 122~123쪽)

이 장면에서도 광성식은 자신이 이십년간 ‘싸베트 문학’과 문화에 애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환기시킨다. ‘싸베트’ 문학 및 문화에 대한 그의 동경은 소련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패잔병 같은 모습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비 구도는 곧 소련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구도를 부각시키는 효

37) 정지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소련’의 이미지’, 『통일문제연구』 54, 2010, 144쪽.

38) 이와 관련된 연구는 임종명, 「종전/해방 직후(1945.8~1948.7) 남한 담론 공간과 ‘적색 제국주의 소련’상(相·像)’, 『한국사학보』 62, 2016 참조.

과를 낳고 있다. 물론 이 장면의 뒷부분에 배치된 이야기에서는 소련군이 성식에 사과를 했다는 점, 성식이 동참하고 있던 조선민주당과 공산진영도 좌우합작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³⁹⁾ 그럼에도 인용된 장면은 소련군의 표상이 '해방의 은인'에서 '강압자'로 변모되기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모는 월남(越南) 이후 광성식이 공산주의를 비판한 언술과도 연관되고 있다.

④ 구라파를 횡행하던 도깨비가 1917년 노서아를 격파시키고, 이제 삼십년이 지나 조선 땅에 들어왔다. 이 공산주의의 도깨비는 지금 조선을 도깨비의 소굴로 변화시키려 한다.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이 도깨비는 자연 무슨 짓을 하여 이 땅덩이를 떠가지고 달아날런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청춘보』, 53쪽)

이 언술에서 '도깨비'는 맑스의 『공산당선언』의 '지금 하나의 유럽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는 첫 구절과 연관되어 '공산주의'를 지시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청춘보』에서는 그 도깨비가 1917년 '노서아를 격파시켰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표현에서 '노서아'와 혁명 이후의 소비에트 연방의 관계는 단절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서아'는 혁명 이전의 사회만을 표상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표현 방식은 '도깨비의 소굴'이라는 구절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을 도깨비의 소굴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말 속에는 '노서아는 이미 도깨비의 소굴이 되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앞의 '로시아의 붉은 군대' 표상이 지리적/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적 상징성을 긴밀하게 통합시키고 있는 반면, '도깨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혁명이 되기 전의 '러시아'와 도깨비의 소굴이 된 후, 즉 공산화된 후의 '소비에트 연방'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39) 이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는 해방 직후의 북조선 정치 질서의 재편 과정은 박명림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나남, 1996)에서 분석하고 있는 초기 분단 질서의 형성과정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소련군과 김일성이 조만식에게 민주당의 창당을 권유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당의 좌우합작을 모색했다는 점, 북한공산주의 지도자의 핵심인물이자 조만식의 오산학교 제자였던 최용건을 조선민주당에 참여시켰다는 점 등이 그 대표적 예다.

그렇다면 함대훈의 『청춘보』는 해방 직후 ‘싸베트’와 ‘러시아’를 표상하는 방식이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를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을까. 『청춘보』에서는 그 시점을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그려내고 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이 격렬한 찬반 논쟁과 좌우대립으로 굴절될 때는 ‘싸베트’에 대한 주인공 광성식의 동경이 사라지게 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물론 그 전조는 “해방보다 혁명적”(146쪽)이라고 표현된 북조선의 풍경을 재현하는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⑤ 새로운 풍경이 전개된 북조선의 한거리에 나리는 눈은 이 이국정조 어린 외국의 거리와도 같은 느낌이다. 사실 붉은 군대가 주둔해 있는 이 북조선의 거리거리는 싸베-트로시아적 기분이었다. 더구나 눈이 나리고 장화신은 군인들이 오고가고 붉은기빨이 휘날리고 러시아 문자로 쓴 간판이 여기저기 붉은 거리는 흡사 러시아의 한 소도시 같았다.

밖은 매일 이 거리에서 그들 군인을 만났다. 그리고 공산당원들을 만났다. 마음속으로 숭배하고 사모하던 러시아 사람과 글자가 그들에게 부들려 갔다온 뒤 어쩐지 성식에게 무슨 해석할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그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그 옛날 꿈속에 그리던 로서아는 가진 못했어도 “하르빈”만이라도 가서 러시아 기분을 맛보고 싶어 동경을 하던 기억, 그리고 그 언젠가 “하르빈”의 거리를 눈속에 걸으면서 러시아 레스토랑에 앉아 사슬류카(갑초카츠洋料理)를 먹고 보-드카를 마시던 그 기억이 새로웠다. 그러나 오늘 그의 심경은 그들의 어깨를 치고 술잔이라도 나누고 싶은 감정에서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청춘보』, 146~147쪽)

이 구절에서 북조선의 거리는 러시아의 풍경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 장화를 신은 러시아 군인과 붉은 깃발이 주는 이국적 정조는 사실 광성식이 동경하고 있던 풍경이기도 했다. 식민지 시기 성식은 그 정취를 맛보기 위해 하얼빈의 거리에 가서 러시아 요리와 술을 맛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군에게 붙들려 간 뒤의 성식에게 그 이국적 풍경은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러시아 분위기의 풍경은 더 이상

곽성식에게 동경과 친밀함을 가져다주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북조선의 거리를 러시아의 소도시와 같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재현해낸 의도는 곧 신탁통치안과 관련된 좌우갈등을 형상화할 때 드러난 『청춘보』의 관점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 작품에서 1945년 12월 말 발표된 모스크바 삼상협정의 신탁통치안은 주인공의 월남(越南)을 이끌어낸 결정적 동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조선민주당의 간부이기도 했던 곽성식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나서게 됐고, 1946년 1월에 벌어진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기념 행사에도 불참하게 된다. 신탁통치안과 관련된 균열이 증폭된 상황에서 ‘짜베트’와 관련된 표상들은 곽성식에게 이국적 풍경으로만 인식될 수 없었다.

⑥ 기차가 눈길을 헤치고 다름질 친다. 때때로 정거장에서 한 시간씩이나 정거를 한다. 그건 붉은 군대의 병사들이 내려서 술을 사먹는 때문이다. 눈이 나리는 시골정거장에 기차를 세우고 술을 마시는 슬라브족의 그 멋들어진 대륙성 기분이 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기차를 탄 사람이란 누구나 한시바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는만큼, 그들에 대한 원망하는 소리는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들리었다. (『청춘보』, 150쪽)

⑦ 눈을 맞으며 그는 평양의 거리를 들어섰다. 곳곳마다 짜베-트 연방 요인들의 초상이 대문짝처럼 크게 그려 거리거리에 붙이고 여겨저기 짜베-트에 대한 선전 감관이 붉고 누르고 검은 글씨로 써어져 있다. 왜정시대 전시에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눈이 여전히 나리었다. 그는 바로 고려호텔을 찾아 조선생을 만났다. 노령으로 여윈 얼굴에 흰수염이 날리고 조선옷을 입고앉으신 노투사 노지사 조선생의 손을 잡았을 땐 성식은 눈물이 핑돌았다. (『청춘보』, 152쪽)

민주당 중요 간부의 검거령이 내려진 후 평양으로 향하게 된 성식은 시골 정거장에서 기차를 세우고 술을 사먹는 소련군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때의 그에게는 소련군이 즐기는 여유가 시적(詩的), 혹은 미학적 관점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한 소련군의 여유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평양에 내려 조만식이 억류되어 있는

호텔을 찾아가는 장면(인용문 ⑦)에서도 주인공은 평양의 거리 풍경에 드러나 있는 ‘싸베-트’ 표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때의 그의 시선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싸베-트 연방 요인들의 초상’이나 ‘싸베트’를 선전하는 간판과 같은 정치적 상징물들이다. 더 이상 ‘싸베-트’는 이국적인 정조를 느끼게 해주는, 미적(美的) 표상들과 결합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신탁통치안이 낳은 갈등 상황을 기점으로 ‘싸베-트’는 곽성식에게 정치적 의미로 고착되기 시작했다. 인용문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된 조만식의 형상, 조선 옷을 입고 있는 노투사의 형상은 이러한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싸베-트’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싸베-트’가 부각되는 계기를 낳은 신탁통치 논쟁(이하 ‘탁치균열’)은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를 낳게 만든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명림에 따르면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 분단 질서의 외형을 만들어냈다면, 그 외형을 내면화한 사건은 바로 ‘탁치균열’인 것이다. ‘탁치균열’의 국면에서 조만식은 “반탁 민족주의”의 전형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신탁통치에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에 소련 군정은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립 정책”을 폐기하기에 이른다.⁴⁰⁾ 이러한 대립구도는 결국 1948년 5월의 미소공동위원회 무기연기로까지 이어졌다. 『청춘보』는 결말 부분에 이르러 바로 그 상황, 즉 미소공동위원회의 연기 소식이 전달된 직후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⑧ 성식은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쳤다.

“36년간의 일본의 지배에서 떠나 이제 겨우 해방된 조선민족이 결국 또 미소양국의 농락을 당한다. 카이로·포츠담 선언에 당당히 ”상당한 권한에 독립을 시킨다“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얄타 비밀협정에 의해서 오늘 조선이 남북이 갈리는 이 비극을 연출했다.....”

성식은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싸베-트의 외교(外交)는 확실히 혁명시대와는 달랐다. 트로츠키 외교시대의 약소민족해방, 무배상부병합의 그 혁명적 외교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고 너무나 오늘의 외교는 다른 방식인 것”을 성식은 느끼었다.

40) 박명림, 앞의 책, 135~136쪽 및 144~150쪽.

(『청춘보』, 159~160쪽)

조선민족이 미소 양국에게 농락되었음을 개탄하는 모습을 볼 때 성식은 분단의 결정적 원인을 미국과 소련, 양국에게서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뒤의 인용 부분에서 성식은 남북 분단의 원인이 알타 비밀협정 때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완범의 연구에 따르면, 38선 획정이 알타 비밀협정에 근거했다고 주장한 것은 1945년 이승만에 의해 최초로 유포되었으며, 이후의 언론들은 이승만의 주장을 근거로 ‘38선이 소련의 참전 대가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⁴¹⁾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주장들은 신탁통치를 먼저 제안했지만 그 제안자가 소련이었던 것처럼 가장했던, 그리하여 민족주의자들이 “소련을 공격하도록 방임”했던 미국의 이율배반적 행태와도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⁴²⁾

그러나 『청춘보』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이러한 역학 관계를 균형 있게 고찰하지 않은 채 알타 밀약설에 근거하여 소련의 외교 정책만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곽성식은 트로츠키의 혁명적 외교관까지 거론하며 ‘싸베트’의 현재 외교 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문제의식에는 당대의 국제/국내 정치적 세력관계를 균형감 있게 바라보려는 자세는 결여되어 있었다.⁴³⁾

『청춘보』는 이국적 풍경으로 감각되던 ‘싸베트’ 표상이 ‘탁치균열’ 논쟁을 전후로 ‘정치적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곽성식은 끊임없이 자신이 “반소주의자거나 반공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싸베트 연방에 대한 이해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51쪽)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의 시선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싸베트’ 형상에는 당대의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려는 감각은 드러나고 있지 않다.

41)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15~16쪽.

42) 박명림, 앞의 책, 152쪽.

43) 이러한 인식은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공유되고 있던 남로당의 연합군 인식, 미국과 소련이 “지고의 선, 혹은 절대의 악이 아니라 조선에 독립을 가져다 준 외세”일 뿐이라고 본 견해와는 대립되고 있다. 정중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형학적 상상력 - 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 434쪽.

V. 심퍼사이저(symphatizer)의 모호한 위상과 낭만적 번역의 종언

식민지 시기 함대훈은 러시아 문학을 자신의 소설 창작에 반복적으로 활용했다. 그 중에서 투르게네프의 소설 『그 전날 밤』은 함대훈의 첫 장편소설 『폭풍전야』에도,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에도 반복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함대훈 문학에 차용된 러시아 문학은 지금 이곳과는 다른 문화, 다른 질서에 대한 인물들의 동경을 이끌어냈으며, 인물들의 동경은 1930년대 중반 발표된 『폭풍전야』에서는 민족운동에 뛰어든 신청년(新靑年)의 형상으로 구체화되어 당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긴장 관계를 만들어냈다.

반면 1943년 발표된 『북풍의 정열』은 『폭풍전야』와 마찬가지로 투르게네프의 『그 전날 밤』을 차용하고 있지만, 이 소설에는 『폭풍전야』와는 변별되는 지정학적 상상력이 구현되어 있다. 『북풍의 정열』에서는 ‘만주’를 둘러싼 당대의 정치적·역사적 맥락은 소거된 반면, ‘만주’와 과거 지식인 청년들의 열정을 이끌어냈던 ‘러시아’를 연결시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열정이 만주에 대한 동경으로 대체되는 과정은 함대훈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1930년대 후반 함대훈의 소설에서는 ‘러시아’가 ‘북국’으로도 표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함대훈 문학에서 ‘북국’은 점차 ‘러시아’가 아니라 ‘만주’를 지칭하는 공간 표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와 만주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만주’가 시베리아 지방과 멀지 않은 지역임을 부각시키는 언술에서도 암시되어 있듯이 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대동아공영권을 확대하고 싶은 제국 일본의 욕망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었다. 함대훈은 ‘북국’ 표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낭만적 동경을, 제국 일본의 지정학적 논리를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함대훈에게 ‘러시아’는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지만, 그 동경은 ‘만주’에 대한 함대훈의 인식에서 드러나듯 언제든 세속적 욕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 발표된 함대훈 소설에서도 확인된다. 해방 직후는 소련이 냉전질서의 한 축으로 부각되고 러시아어가 한국인의 일상적 담화공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였다. 함대훈은 『청춘보』

를 통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고 소련의 문화를 동경하던 연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후, 그의 시선으로 해방 전후의 북조선 사회를 재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러시아의 문화 및 ‘싸베-트’와 관련된 다층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재현의 양상을 만들어낸 것은 주인공이 지니고 있는 심피사이저 의식, 즉 ‘동반자 의식’이다. 주인공 광성식은 끊임없이 자신이 ‘싸베-트 연방’의 충실한 ‘이해자요, 동반자’(51쪽)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동반자 의식은 식민지 후반의 조선에서 금지의 대상이었던 ‘싸베-트’ 문화의 이국성을 그가 동경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러시아어와 ‘쏘베-트’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은 이를 금지하는 식민지 시기의 분위기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주인공 광성식은 자신이 한때는 맑스-레닌의 책에 경도되었으며 스탈린, 부하린의 저서도 탐독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이자 영어와 교환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게 된 해방 직후, 즉 진주해운 ‘싸베-트’ 군인들과 직접 대면하게 된 시기에 이르자, ‘러시아’ 및 ‘싸베-트’를 재현하던 주인공의 시선은 변모하게 된다. ‘붉은 군대’라는 상징 아래 ‘러시아’와 ‘싸베-트’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던 시선은 점차 변모하였고, 월남(越南) 이후에는 ‘러시아’를 ‘공산주의’라는 도깨비에 의해 점령된 소굴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싸베-트’는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모를 이끌어낸 결정적 계기가 신탁통치와 관련된 논쟁이었음을 『청춘보』는 부각시키고 있다. 이국적 풍경으로 감각되던 ‘싸베-트’ 표상에 매혹되던 주인공은 ‘탁치군열’을 전후로 ‘싸베-트’를 ‘정치적 상징’으로 고착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에 월남 이후의 광성식의 모습, 무장투쟁을 통해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는 광성식의 모습에는 ‘싸베-트’의 사회와 문화에 동조하던 심피사이저로서의 문제의식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해방 이전과 해방 직후의 짧은 기간 동안 ‘싸베-트’의 사회와 문화에 동조했던 경험은 현재의 북조선에 대한 주인공의 비판을 정당화하는 근거로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변모는 이 작품이 ‘청춘’ 및 ‘연애’를 서사화하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청춘보』는 해방 전후의 사회/문화를 재현하는 이야기의 서두와 끝에 17년전 사랑을 나눴지만 지금은 38세의 미망인이 된 혜영과 주인공의 만남/헤어짐 장면을 배치하고 있다. 이미 아내가 있는 성식은 혜영과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끝내 그 충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작품에서 38세의 미망인 혜영은 조선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하는 38선과 등치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망인 혜영은 성식이 청춘 시절 간직했던 낭만적 열정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다. 그 낭만은 ‘싸베-트’ 및 ‘러시아’ 문화에 대해 품었던 주인공의 정열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청춘보』의 주인공인 성식은 과거의 청춘을 회상하는 자리에 서서 청춘 시절의 열정들과 결별하고 있다. 청춘 시절 성식이 지녔던 낭만과 열정 대신 부각되고 있는 것은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북으로 향해 북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다. 광성식은 무력을 행사하지 말고 조직만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북으로 떠나려고 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주인공이 스스로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려 했던 심퍼사이저의 모호한 위상, 그 모호한 자리는 바로 그렇게 반공/반소 청년들의 형상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 형상은 해방 이후 한국의 러시아 문헌 번역자가 걸어야 했던 행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에서 발표된 러시아 문학 연구의 현황을 점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일본 유학을 통해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던 식민지 조선의 제1세대 러시아 문학도는 지속적으로 전공 분야 전문가의 길을 걷지 못했으며,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는 러시아 문학과 소비에트 문학에 대한 연구 자체가 침체기에 빠져들고 말았다.⁴⁴⁾ 최근의 연구자들이 식민지 시기 가장 핵심적인 러시아 문학 연구자이자 번역자로 규정한 함대훈의 해방 이후 행보, 그리고 해방 직후 그가 발표한 소설 『청춘보』의 주인공 광성식의 면모는 해방직후 한국의 러시아 문학 연구가 걸어야 할 침체의 길들을 서사의

44) 엄순천, 「한국 러시아문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세계문학비교연구』 17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06, 328쪽 및 김진영, 「일본 유학생과 러시아문학-조선의 1세대 노문학도를 찾아서」, 『러시아연구』 25권 1호, 2015, 28쪽 참조.

형태로 예견하고 있다.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과 러시아의 이국적 문화에 대한 동경에 의해 수행되던 낭만적 번역, 해방 전후 함대훈 소설의 러시아 표상은 그러한 낭만적 번역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함대훈, 「폭풍전야」, 『조선일보』 1934.11.6~1935.4.28.
_____, 「순정해협」, 『조광』, 1936.1~8.
_____, 「무풍지대」, 『조광』, 1937.7~1938.1.
_____, 『무풍지대』, 보성서관, 1938.
_____, 『복풍의 정열』, 조선출판사, 1943.
_____, 『청춘보』, 경향출판사, 1947.
_____,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30』, 태학사, 1998.
_____, 『순정해협』,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25』, 태학사, 1988.
_____, 「남북만주편답기」,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_____, 「환멸기의 노문호 ‘안톤 체홉’ 연구」, 『동아일보』, 1930.03.04.~03.19.
_____, 「십월혁명 이후 소비에트문학의 경향-프로소설을 주로」, 1930.11.1~11.09.
_____, 「人間描寫問題 上-누가 人間을 描寫하나」, 『조선일보』, 1933.10.10.
_____, 「내 藝術에 對한 抗辯 (上)」, 『조선일보』, 1937.10.24.
_____, 「내 藝術에 對한 抗辯 (中)」, 『조선일보』, 1937.10.26.
_____, 「人間描寫와 集團描寫-林和, 白鐵州와 다도든 넷일」, 『조선일보』, 1938.02.05.
_____, 「소연방신문개관」, 『신문평론』 창간호, 신문평론사, 1947.4

2. 논문

- 강용훈, 「식민지 청년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과 교통 없는 공동체-1930년대 함대훈 장편소설에 표상된 ‘공동체’와 ‘여성」, 『우리문학연구』, 2015.
김미란, 「감각의 순례와 중심의 재정위」, 『상허학보』 38집, 상허학회, 2013.

- 김진영, 「일본 유학생과 러시아문학-조선의 1세대 노문학도를 찾아서」, 『러시아연구』 25권 1호, 2015.
- 남원진, 「한설야의 <모자>와 해방기 소련에 대한 인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47, 2011.
- _____, 「해방기 소련에 대한 허구, 사실 그리고 역사화」,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
- 문경연, 「무대 위의 러시아, 번역된 고리키」, 『한국학연구』 35, 2014.
- 문환별, 「일제강점기 신문 연재소설의 이중 검열 양상」, 『국어국문학』 174, 2016.
- 박명림이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Ⅱ. 기원과 원인』, 나남, 1996.
- 박용재, 「해방기 신어사전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37, 2013.
-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 1」,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14.
- 손성준, 「식민지 벽연장과 검열-조명희의 『그 전날 밤』 번역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집, 2015.
- 엄순천, 「한국 러시아문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세계문학비교연구』 17권, 2006.
- 이덕기, 「일제하 전시체제가 이동연극 연구: 이동연극 제1대와 극단 현대극장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30, 2009.
- _____, 「일제 말 극단 현대극장의 국민연극 실천과 신극의 딜레마」, 『어문학』 107, 2010.
- 이상우, 「1940년대 현대극장과 친일극 연구」, 『한민족어문학』 38, 2001.
- 이완범, 『삼팔선 획정의 진실』, 지식산업사, 2001.
- 이현구, 「인물론 일보 함대훈」, 『신문과방송』, 한국언론재단, 1976.
- 이현주, 「1920년대 후반 식민지 문학에 나타난 ‘북국(北國)’ 표상 연구」, 『우리문학연구』 44집, 2014.
-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2009.
- 임중명, 「중전/해방 직후(1945.8~1948.7) 남한 담론 공간과 ‘적색 제국주의 소련’상(相·像)」, 『한국사학보』 62, 2016.
- 장영은, 「금지된 표상, 허용된 표상-1930년대 초반 『삼천리』에 나타난 러시아 표상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22, 2008.
- 정종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 - 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 2009.
- 정지아, 「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소련’의 이미지」, 『통일문제연구』 54, 2010.

- 조은애, 「통역/번역되는 냉전의 언어와 영문학자의 위치」, 『한국문학연구』 45, 2013.
- 한홍화, 「만주 여행과 모순된 욕망의 문학적 재현-함대훈의 장편 소설 <북풍의 정열>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1, 2013.
- 황호덕,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대동문화연구』 85, 2015.
- 허 은, 「냉전시대 남북 분단국가의 문화정체성 모색과 '냉전 민족주의」, 『한국사학보』 43, 2011.

❖ ABSTRACT

Russia Represented the Novel of Dae Hun Ham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Kang, Yong-Hoon

Daehoon Ham's novel 'Cheongchunbo' features a studier as the main character who majored in Russian literature and admired the culture of the Soviet Union. From his viewpoint, the novel reproduces North Korean society before and after its independence from Japan. In this regard, it shows multilayered presence related to Russian culture and Soviet Russia. Such an aspect is based on the sense of sympathy that the main character has. The sense of sympathy is originated from the main character's admiration for the exoticism of Soviet culture which was forbidden during the late Japanese occupation.

After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Russian was replaced by English. Such change also occurred in the main character's viewpoint. He underwent a change in his integrative viewpoint on Russian and Soviet under the name of Red Army. After defecting to South Korea, he began to put Russia down as a den possessed by the devil called 'communism.' In the meantime, Russia and Soviet have been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ideological terms.

The novel 'Cheongchunbo' stresses that the decisive cause of such changes is argued over trusteeship. The main character, fascinated by the presence of exotic Soviet, predicates that Soviet is a political symbol around the national division caused by the trusteeship.

His change alluded to the life path of Korean authors who translated Russian literature after independenc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Russi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Korea was a longing for forbiddance and admiration for Russia. However, the Russia presented in Daehoon Ham's novel before and after independence implies that the romantic translation has ended.

Key Words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Daehoon Ham, Russia, Soviet Union representation, romantic, translation, Cold War

논문접수일: 2016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9월 05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06일